

부실한 타당성 조사 불리한 유치 계약 “F1 총적자 4000억 예상”

광주 U대회 과도한 유치 공약 150억 추가 부담

국회예산처 ‘국제스포츠행사 평가보고서’ 분석

전남도가 개최하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기대회가 부실한 타당성 조사와 불리한 계약 등으로 총 적자가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는 과도한 유치 공약으로 15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F1대회가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유치계약을 체결, 대

회 개최기간 동안 재정수지 총적자가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F1이 부실한 사전검증과 불리한 계약 탓에 연평균 577억원에 달하는 구조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장권 수입은 증가하지 않는 반면 대회 운영에서 지급하는 개최비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6년까지 7차례 대회 개최에 따른 총적자가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타당성 조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간접적 편익까지 포함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했고 타당성 분석보고서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 기초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 입장객의 비중을 명확한 근거 없이 25~31%로 추정하는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가정에 근거해 편의를 부풀려 추정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남도가 F1을 정부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유치한 후 뒤늦게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점

에도 주목했다.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자본 조달 계획으로 민간기업과 자자체가 독자적으로 유치했으나 민자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F1지원법 등을 통해 1001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는 게 국회 예산처의 지적이다.

광주U대회의 경우는 과도한 공약이 비판을 받았다. 보고서는 “광주U대회에 참가하는 입장권과 선수단에 환공료와 체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유치공약을 내기는 바람에 100억 원대 ‘공약비용’을 지급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광주시는 항공료로 개발도

상국 80%, 선진국 60%를 지원하고 체류비는 매일 50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해 총 151억9300만원이 공약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무분별한 국제스포츠행사 유치와 과다한 시설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선 ▲사전 타당성조사에 관한 분석 틀과 기준을 명시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비 타당성조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정부의 승인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오른쪽)이 2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2013 스포츠어코드'에서 김윤식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함께 비탈리 무트코 러시아 체육부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운태 시장 러시아서 수영선수권 유치 활동

‘스포츠어코드’ 참석

市, 홍보 부스 설치

연맹(FISU) 등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치열한 스포츠 마케팅과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도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 광주’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최고의 준비를 갖춘 최적의 도시는 광주’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전략을 통해 홍보를 겸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 시장은 홍보부스를 찾은 세계 스포츠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광주를 홍보하는 등 스포츠 외교활동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강 시장은 특히 28일 훌리오 마그리오네 FINA 회장과 집행위원, 코넬 사무총장을 비롯한 FINA 가족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그동안 광주에 보여준 각별한 관심에 감사의 표하고, 지난 실사 기간의 평가와 조언을 바탕으로 대회 준비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29일 경남도가 폐업을 공식 발표한 진주의료원에서 폐업 철회를 촉구하고 흥준표 경남지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103년 역사 진주의료원 끝내 폐업

노조 “흥준표 지사 퇴진 투쟁”… 야 강력 비난

경남도가 29일 103년 역사를 이어온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문을 닫았다. 전국에는 34개의 공공의료원이 있고 대학병원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제주·충천의료원이 폐업한 적이 있지만 기능전환 등 계획이 전혀 없이 폐업한 것은 진주의료원이 처음이다.

경남도의 폐업 강행에 여당은 적극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야당은 강력히 비난하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흥준표 경남지사 폐진운동을 거론하며 진주의료원 ‘사수투쟁’을 공언해 긴 과장을 예고했다.

경남도가 과천한 박관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자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흥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정 회의실에서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폐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의료원 측은 이에 앞서 오전 9시 진주보건소에 폐업을 신고했다.

흥 지사는 “휴업 중인 의료원 폐업 결정을 수용했지만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면서 “표만 의식해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정의도 아니고, 공직자의 도리도 아니다”고 폐업을 강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라오스서 추방 탈북 고아 9명 강제 복송

억류 18일간 우리대사관 면담못해

라오스에서 추방돼 중국으로 이동한 탈북 고아 9명이 북한 고려항공을 이용해 28일 평양으로 강제 복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민들이 이제 복송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라오스에서의 추방과 북한 요원에 의한 신속한 호송 모두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인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탈북 고아 9명은 지난 9일께 중국

에서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불심검문에 적발돼 이민국에 억류됐다. 라오스는 애초 우리측에 한국행을 허망한 이들의 신병의 인도할 뜻을 밝혔으나 입장을 바꿔 추방했으며 우리 측은 사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관도 라오스 측에 이들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면담을 시도했으나 탈북고아들이 억류됐던 18일간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탈북 고아들이 결국 압송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전국 모든 원전 안전점검 해야”

새누리, 정부에 요구… 시험성적서 위조 원전 중지

새누리당은 29일 불량부품 사용으로 인한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지원과 관련, 전국의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부에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에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사용했다는 가동이 중단된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이외에 전국의 20여개 원전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해외기관을 통해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정부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또 부품계약 관련자들에 대한 전원 처벌도 요구했으며, 일부 참석자는 “재산압류나 출국금지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격昂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당시 김기현 정책위원장·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여성구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간사 등이, 정부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김규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일부 원전이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부품을 사용하면서 가동이 중단된 것과 관련, 확실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시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삼희공인증개사

모든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경 공 압 류

미준공건물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매수자 상담환경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 / 010-8730-3340
신뢰를 안내지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신한공인증개사

신축 원룸 매매 전문

★북구 전대 상대·농대 1층, 신축 4층, 품, 147㎡(주택있음)

월수익 500만, 매기 5억 9천만(벽돌시공, 대리석시공)

★북구 전대 정문 1층, 신축 4층, 품, 16개(주택 40평)

월수익 750만, 매기 8억 4천만(벽돌시공, 대리석시공)

★북구 전대 정문 1층, 신축 4층, 품, 21개(주택전환)

월수익 750만, 매기 8억 8천만(엘리베이터,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서구 쌍동동 운천역 2층, 신축 3층, 품, 8개(주택있음)

월수익 280만, 매기 5억 2천(보 2천, 용 1억 2천)

★서구 쌍동동 신축 4층, 원·투룸 14개(주택있음)

매기 6억 5천(보 3천, 투 3천, 용 2억 5천)

★북구 삼각동 신축 4층, 원·투룸 11개(주택있음) 코너, 최고 위치 월수익 330만(보 250만, 용 1억 2천) 매기 5억 5천(보 3천, 투 2천, 용 1억 2천)

★상가 대마 1층, 수원지구 대방 55평 후문 59㎡(보 3천, 월 10만) 모든업종가능

★상가 대마 3층, 수원지구, 모아빌 APT 150㎡(보 1천, 월 90만) 즉시입주, 시비없음

★상가대마 1층, 수원지구 롯데마트, 영화관 300세대 대방 5차 APT 후문 59㎡ 매기 3억 6천, 임대(보 3천, 월 150만)

★상가 대마 1층, 수원지구 신한은행 월 300세대 모아빌 APT 후문 3층 280㎡ 매기 3억 2천(보 2천, 월 200만, 용 2억 5천) 월 300만(보 8천만, 월 360만, 용 2억 5천만)

★상가대마 1층 4개, 수원지구 대방 1층 APT 정문 대지 304㎡ 매기 6억 3천(보 8천만, 월 360만, 용 2억 5천만)

★상가대마 1층 4개, 수원지구 대성베르힐 대지 304㎡ 매기 7억(보 1억 3천만, 용 4억)

독서실 급 임대

수원지구 3천세대 모아빌 APT 1층, 총 91㎡ 신축,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보 5천만, 월 250만, 시비인간있음)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동(국민은행, LG전자앞)

현대공인증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증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재지 : 광산구 산정동

• 면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지목 : 접수지

• 입지조건 : 대형차량진입 가능

• 허용용도 : 공장, 창고, 병원, 종교시설(폐차장,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 면적(분할가능) 및 기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